

생명의 떡 (요한복음 6:28-40)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인생의 답은 이 떡을 매일 먹는 것이다. 그러면 끝이다. 하나님이 끝을 내주신다.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떡을 매일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 영원히 살고, 오늘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살아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간단하다. 노력하고 힘쓰기 이전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 중에는 왜 인생이 안 풀리냐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왜 나는 어렵고, 응답이 안되는가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간단한 답을 주셨다. 이유는 사단이고 답은 그리스도이다.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런 비밀이 있었던가 싶다. 그냥 듣고만 있으면 평범하게 들린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체험이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출발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다 알고 있고, 안되면 매일 언약으로 잡는다고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약속했으므로 어느날 응답으로 잡힌다.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다르다. 계속 하게 되어 있고 힘을 얻게 된다. 자동으로 우리 인생에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다. 인생 참 간단하다. 이것으로 인생을 살으라고 했다. 이만한 답이 세상에 없고 완전한 답이다. 그래서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으면 증거가 반드시 일어난다. 증거가 오면 내게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느껴지게 되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고 깊은 고백 나오게 되어 있다. 언약을 잡아도 깊게 잡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오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능력과 권세가 더 확실하게 되어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지속하면 그리스도가 자꾸 깊이 고백되어 진다. 깊이 누리려면 더 큰 영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거기 생명 걸게 되어 있다. 이것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 세상에 안 보이게 되어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해도 항상 이것을 근본으로 잡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들어도 한번 듣고 버리는게 아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것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인정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품게 되어 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요단강 건널 때 언약에 따라가는 것과 그림이 똑같다. 하나님이 멀리서 따라오라고 하셨다. 너희는 이 길을 처음 가기 때문에 이 언약에 가더라도 가는 지 멀리서 보고 놓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편집이 된다. 거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되어 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말씀으로 편집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 언약을 잡고 드려야 한다. 언약이 없는 예배는 결국 허공을 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다 그런건 아니지만, 시간낭비이다.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언약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 잡는 것이다. 하나님, 그 안에서 성령충만 주실 것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하늘군대, 사단결박,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237, 치유, 서밋,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렘넌트 다민족, 선교, 제사,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우리는 예사로 듣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한 비밀을 심어 놓으셨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깨달아서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중대한 말씀 받고 승리,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1. 생명의 떡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나고, 예수님이 이야기 하셨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다. 그것 뿐만은 아니다. 근본이고 출발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겠느냐? 광야에서는 만나가 있었는데..그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대답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부터 내려주신 참 떡이라고 하셨다. 만나는 사실 가짜였다는 것이다. 만나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짜이다. 이 떡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6장 1-15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주신

말씀이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대단하기 때문에 이 떡 때문에 이 분이면 내 인생 끝났다고 믿고 따라온 것이다.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참 떡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참 떡을 주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33절에는 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광야의 만나 육신을 위한 떡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생명의 영원한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떡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믿었는데, 사실은 설명은 안된다. 분명히 믿었는데, 믿음에 대한 증거도 있지만 설명 하라고 하면 설명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사람은 믿는 자이다.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실제로 된다. 영원히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육신적으로도 주리지 않는다. 육신적으로도 목마르지 않고, 영적으로도 목마르지 않고 주리지 않는다. 천국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길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다. 36절에는 보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믿어야 하는데 안 믿으니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37절에는 그러나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라고 하였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 쫓지 않는다고 하였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에게 줘야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한 명도 내 쫓지 않으신다. 구원의 계획이 있는 자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한명도 내 쫓는 일 없고, 그 구원에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참 놀랍다. 감사하다.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다.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계획이 있어서 내게 믿음이 나타난 것이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행하려 오셨다. 40절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날에 살리신다 하셨다. 39절에는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셨고,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하셨다. 같은 말이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 때 다시 살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몇절 읽었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한 주제가 들어가 있다. 세상의 신학은 성경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을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 아는 자는 그래서 신학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만나 귀하다. 40년간 만나 없었으면 전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5병2어의 떡도 얼마나 귀한가? 그 떡을 가지고 나누어주기 시작했는데 계속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떡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떡이라고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다. 육신의 배부름으로 끝났지만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명을 누리는 참 떡이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떡의 맛을 봐야 한다. 진짜구나,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진짜 살리는 떡이네, 생명이 있네..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되면 첫째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 부족해도 이 떡을 매일 먹기로 마음 먹으면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떡을 먹어라.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 떡은, 이 답은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다. 세상에는 이런게 없다. 하면 된다. 잘 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면 된다. 역사 일어난다. 이 떡을 생명의 떡, 살리는 떡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살아난다. 무슨 일이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다. 때로는 역전이 일어나버리니까 기적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인데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하였다. 이 떡이면 누구든지 살아난다. 이것은 절대적인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일은 없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살아난다. 절대적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인생을 살리고 싶은 사람은 이 떡을 먹기 바란다. 되든지 안되든지 매일 이 떡을 먹어야 한다. 렘넌트들, 청년들,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먼 훗날 되돌아 볼 때, 그것이 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패

는 절대 없다.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단지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전혀 없다. 이 떡을 매일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떡을 먹는 방법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고, 그리스도에 오직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언약의 여정을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계속 잡으면 된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언약이라고 고백을 계속 하라. 그러면 은혜 받게 되어 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혜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고백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있으면 어느날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수록 계속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다. 옛날에는 기도해도 힘써야 하고 불안했지만 그렇게 없어진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언약이라고 한다. 다른 것 필요 없다. 이것을 누리고 확인하고 오늘도, 지금도 잡으라.

그들은 그냥 언약계를 따라갔지 자기들이 뭐 한거 아니다. 우리도 언약계를 그냥 따라가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요단강 물을 퍼내지 않았다. 감사한 일이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 따라가는 것은 다리에 힘을 주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고백하면 된다. 잘 안되는 사람도 있을수 있다. 낙심할 필요 없다. 답은 이것이기여 여기에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고, 단 한사람도 잃지 않으신다.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께 가면 그것을 내게 언약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라. 다른데로 갈수 있다. 아직 내 수준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 수준일수 있다. 괜찮다. 헌신같은 것은 아직 생각 안되도 괜찮다. 그리스도를 잡을 때 응답만을 생각하며 잡아도 괜찮다. 그건 내 시간표이다. 나중에 그 응답을 자주 받아가면 내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다. 그 때 바꾸면 된다. 나는 아직 헌신의 시간표도 아닌데, 헌신도 하고 언약도 누리야 한다고 하면 그게 양다리 걸친 것이다. 헌신에 대한 생각 없으면 그리스도 응답을 위해 하라는 그 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싫은 것도 있을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러면 노는 것이다.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다. 매일 들어와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없으면 놀면 된다. 그러면 예배도 안되도 되나? 안와도 된다. 집에 있어도 된다.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불안이 일어나고 사단이 틈타고 공격하는 것이다. 나는 응답을 받고 싶은데 기도는 하기 싫다. 그러면 기도 안하는 것이다. 기도 안하고도 응답 많이 받는다. 불신자들. 그때 한문장짜리 기도, '하나님 나도 응답해주세요' 기도 끝. 그것도 싫고 생각 안 나면 그냥 사는 것이다. 어느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 지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여하튼 성경의 답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말씀을 늘 듣는 중에 이것을 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답이므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یدن 다 죽이셨다. 이경도로 권세가 있는 것이 언약이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은가? 그 출발이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매일 먹어야 한다. 그러면 매일 승리하고 정복한다.

2. 237, 선교운동

여러분의 기도 중에 엔세나다를 잘 다녀왔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하지 않아서 안가려고 했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다녀왔다. 이번에 가서 리카르도, 호세아스 목사하고 세가지를 의논했다. 첫째는 이 두 분이 진짜 라틴아메리카에 선교사가 될 것인지를 확인하려 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결된 분들을 RU와 함께 가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갔다. 그래서 김상범 목사하고 함께 갔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성경공부를 새로운 형태로 해야되겠다 싶어서 갔다. 호세아스 목사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기 전에 1-2주 전에 전화를 리카르도 목사에게 했다. 그러니 거기에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호세아스 목사에게, 교회에 언제 돌아갈거냐고 하니 모른다고 하였다. 목사가 자기 교회 놔두고 놀아도 되나니까 안가도 된다는 것이다. 자기 대신으로 메시지를 할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설교를 목사님만큼 잘하니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전화할 때 자기는 안가도 된다길래 진짜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두고 선교사를

하라니까 당장 하겠다는 것이다. 그때 스피커 폰으로 이야기 하는데 리카르도 목사가 옆에 있다가 자기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진짜라고 했다. 진짜로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대답 제대로 하라고 하고 질문을 다시 했다. 그랬더니 진짜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다면 가서 대면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코로나도 그렇지만 가기로 작정하고 다녀왔다.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이야기 하고, 지금까지 갔던 곳에 한바퀴 더 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우리도 가야 되겠지만 현자인 목사들을 많이 세워야 한다. 김상범 목사도 메시지를 하고 그랬다. 그래서 확인을 했다. 진짜 라틴아메리카를 놓고 선교사를 하겠다면 플타임으로 해야 하고 그러면 서포트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지막날에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방에 호세아스 목사가 찾아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페소, 우리 돈으로 5천불정도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을 뺏기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5천불 때문에 집을 뺏기는게 말이 안된다. 그래서 자기가 아 들된 마음에 그냥 보고 있을수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버지 돈을 갚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달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날 자기 교회 성도중 한명이 돈을 5만 페소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5만 페소면 갚아야 할 돈의 반이 넘는 돈이었다. 이것은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개인에게 주는 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나하고 선교사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날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선교사로 뛰어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동안 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감사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왔다. 본래 호세아스 목사는 자기 교회에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여기에 늘 안 있는다. 나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만 나는 돌아다녀야 한다고 평소에 말해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사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카르도 목사와 자기 밑에 알론소라는 목사가 있다. 부목사인데, 그 밑이 남미 렘넌트 대회에서 대표로 기도한 렘넌트이다. 그래서 또 흥분되어서 울었다는 것이다. 리카르도 목사도, 나는 목사 아니고 선교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나 혼자 생각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에 대해 새로운 시간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 아래 올라오는 목사들도 있지만 내 혼자 생각에, 적어도 한 지역에 2-3년 보내면 그 지역에 우리가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역자들이다. 기도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237 선교운동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 전해야 된다. 성경에는 많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 전략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근본, 복음에 대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고, 증인되게 되어 있다. 왜냐면 자기들이 살아났으니까. 안되는 경우 없고, 반드시 된다. 그리고 아무도 이 일을 방해할수 없다. 이것은 권세이다. 이 운동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부 제거했다. 사람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이 일에 방해되면 다 죽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림이다. 피를 바른 그 날 저녁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졌다. 이 언약의 피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날 다 나았다. 그냥 나온게 아니라 큰 재물과 함께 나왔다. 그리고 각 광야에 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전쟁은 불었다 하면 다 이겼다. 전적이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뿐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저녁 되면 메추라기가 와 있고, 가지도 없고 잡아서 먹을때까지 그냥 있는 것이다. 요단강을 흥해처럼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리고 무너뜨리는데 손냈는가? 돌다 소리 지르니 저절로 넘어졌다.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할때에도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안 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과 복음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아무도 막지 못하고 절대적이다. 우리도 이러면 된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다. 복잡한 이유는 이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다. 오늘도 생명의 떡인데, 내 살고 싶냐? 너 어두운 마음 살리고 싶냐? 무너지는 것 다시 일으키고 싶냐? 이 말 아닌가? 그러면 이 떡 먹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할것이지, 내가 이 떡을 매일 먹는가? 안 먹고 있으면 먹으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진짜 하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 하면 구태어 응답을 위해 많이 기도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내용이 무엇인가? 이 복음과 복음운동이다. 이것이 진짜 기도이다. 정말 24시 이것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237,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한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다. 바톤 잡아야 한다. 오늘도 이 떡을 먹기 바란다. 매일 먹기 바란다. 잘 못 먹을 수도 있다. 괜찮다. 먹으면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생 끝이다.